



마곡사·현대불교 공동주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네!” 내가 웃으니 연꽃이 활짝



“내가 웃으니 연꽃이 피네요.” 마곡사 여름 어린이 명상을 통해 아이들은 소중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과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어린이 되기

7월 29일, 입제사에서 마가 스님(마곡사 포교국장)이 어린이들에게 당부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새벽 예불때 졸려도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해요. 반찬도 풀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배설도 한번 빼주세요. 나물만 먹으면 날씬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 갈 겁니다. 선생님들과 멋진 여행 시작합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네~!”
템플스테이 첫날입니다. 점심공양을 마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떠나보내고 연화당 큰방에 모여 파란반 초록반 주황반 노란반 반도 나누고 담임선생님도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2박 3일 동안 펼쳐질 명상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즐거워합니다. 창경이가 큰소리로 “내가 웃으니 연꽃이 활짝

아자!! 연꽃!!”이라고 목청을 높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스스로 연꽃이라 이름 짓고, 연꽃반의 구호까지 정한 모양입니다.
지도법사 묘운 스님은 아이들에게 가족들의 자랑거리 장점을 적어내랍니다. 아이들은 연화당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아이들은 곰곰이 아빠 엄마의 장점,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는 포박포박 적어 내려갑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명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공정을 심는 과정입니다. 묘운 스님은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신을 긍정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사고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보고 칭찬할 수 있는 아이가 남을 칭찬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능숙하기 때문이랍니다.
6학년 현제는 아빠가 자신을 친구처럼 대해줘서 좋답니다. 라면도 잘 끓여주고 누시를 좋아해서 회도 많이 만들어 준답니다. 결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와서 좋답니다.
3학년 아정은 누가 봐도 훌륭한 엄마 아빠를 가진 듯합니다. 이런 것도 자랑거리인가 싶지만, 자신은 ‘시력’이 좋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눈물을 흘리다 슬며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엄마 아빠 가족들을 자랑해보라는데도 그 아이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아파했습니다. 두 분 스님과 선생님들은 “2박 3일 동안 어린이의 마음에 막혀있는 무언가를 어루만지기 위해 내내 마음을 써야 할 것 같다”며 입을 모읍니다.

백련암 참배하고 개울서 물장구

둘째 날 새벽 3시,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에 잠을 깰 겁니다. 아직 잠에 취해 정신 차리지 못한 듯 보이던 아이들은 이불을 개고 대광보전으로 향합니다. 도시에서만 자라는 아이들에게 새벽 3시는 무리인듯 보였지만 예불에 빠지는 아이는 없습니다. 기도스님의 목탁소리에 예불이 시작됩니다. “이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반배)~” 대견하게도 아이들은 예불을 곧잘 따라 합니다.
예불이 끝나자 마가 스님은 “이제 108배를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하세요, 힘들다고 느끼는 내 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하는지 느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죽비소리에 맞춰 가장 가까이 있어 고마운 주변의 분들을 위해 절을 합니다. 첫 번째 절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감사합니다”며 고사리 손을 모아 엎드렸다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고두례(叩頭禮)’로 힘겨운 108배를 마칩니다. 곧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마움을 고스란히 내 의식속에 담아내기 위해 눈을 감고 앉았습니다. 시원한 새벽바람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어 줍니다.
점심공양을 마치고 아이들은 마곡사 말사인 은적암, 백련암을 올랐습니다. 4학년 소현이는 막내 동생 효상이의 손을 꼭 잡고 가파른 언덕을 천천히

6차 어린이 명상 템플스테이

개구쟁이 선재동자들이 마곡사 부처님 품안에 포옥 안겼습니다. 전국에서 100명의 어린이들이 동참한 마곡사 여섯번째 여름 템플스테이 ‘어린이 명상’이 7월 29-31일 열렸습니다. (5차 여름 템플스테이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27-29일 열렸습니다.) 마가·묘운 스님과 대천·충청지역 포교사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아이들은 2박 3일간 불교를 보다 깊이 체험했습니다.

잘도 오릅니다. ‘일현교(一玄橋)’를 건너 개망초가 흐드러진 오솔길을 따라 오르니 금세 백련암이 보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가지고간 수박을 마음껏 먹고, 귀가 따갑도록 울어대는 매미소리를 들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연의 친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물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건너 개울 징검다리에서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진을 치고 물을 침범합니다. 개울을 하얗게 메운 아이들은 그 자체가 장관입니다. 아이들은 넉넉한 웃음의 묘운 스님과 함께 신나게 물장구를칩니다.
지나던 어른들도 걸음을 멈추고 선재동자들이 노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쳐다봅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신나는 한여름 오후, 하루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천진불쌍입니다.



‘어린이 5계’ 수계사에서 아이들은 연비를 받으며 수계의 참의미를 새겼다.

아이들은 씩씩하게 ‘어린이 5계’를 모두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어, 수계사를 마친 아이들은 이날 수많은 친구들과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인가를 확인했습니다.
5명씩 차례대로 상위에 올라가 묘운 스님, 여러 선생님들, 다른 아이들로부터 3배와 공경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 위에 올라 앉아 합장한 채로 절은 받는 아이들은 어색한지 머쓱한 표정입니다. 연우도 이러한 상황이 어색한 듯 헤쳐가며 웃기만 합니다. 지금껏 자기가 진정으로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템플스테이를 마친 아이들은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며 자비심 넘치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이 얼골 가득합니다.
2박 3일간의 마곡사 여름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각자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별종루 열 아슬거려리 백구야, 공양간 고양이야, 백련암 다뤄줘야 내년에 다시보자!’ 라고. (0411841-6221
글·사진/마곡사=조용수 기자



마곡사 박물관 앞 개울에서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노는 아이들과 묘운 스님은 한데 어울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혔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중립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복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를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올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졌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화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오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인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